

# ‘화려한 부활’ 삼성, ‘수주킹’ 현대… 강남·강북 양분

## 정비사업 슈퍼워크 총 결산

현대건설 용산 ‘한남3구역’ 수주 누적 수주액 3.2조… 정상 탈환

롯데건설, 갈현1구역 시공권 따내 1.5조 누적… 현대에 밀려 ‘2위’

삼성물산, 5년 만의 재건축 수주 ‘반포3주구’ 수주성공…3위 기록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에 제시한 ‘디에이지 한남’ 투시도.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에 제안한 구반포 프레스티지 바이 레미안 투시도. /삼성물산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를 정하는 ‘슈퍼시즌’이 마무리 되면서 건설사의 수주실적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불린 용산구 한남3구역에 수주한 현대건설은 ‘강남재건축 최대어’ 서초구 반포3주구를 수주한 삼성물산과 함께 한강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정비사업의 시공권을 양분했다.

### ◆현대건설, ‘수주킹’ 등극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1일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의 시공권을 따내며 도시정비수주실적 1위로 올라섰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 분야에서 누적 수주액 3조2764억 원을 기록했다. 한남3구역은 공사비가 총 1조88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대림산업, GS건설과의 3파전 끝에 한남3구역 수주에 성공하며 정상 자리를 되찾았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시장에서 2조8322억 원 규모의 수주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당초 올해 도시정비 수주 1위는 롯데건설이 지키고 있었다. 롯데건설은 올해

초 9200억 원 규모의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현대건설과의 경쟁한 결과 시공권을 따내며 총 1조 5887억 원의 누적 실적으로 선두를 달렸지만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을 수주하면서 1위 자리를 재탈환 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올해 한남3구역 외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북측제2구역 도시환경정비(3037억 원) ▲서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402억 원) ▲서울 제기4구역 재개발(1590억 원) ▲서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402억 원) ▲부산 반여3-1구역 재건축(2441억 원) ▲대전 대흥동 1구역 재개발(853억 원)

▲강원 원주 원동나래구역 재개발(2089억 원) ▲대구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824억 원) 등을 수주한 바 있다.

### ◆삼성물산, 반포3주구 수주로 ‘화려한 부활’

5년 만에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타난 삼성물산은 강남 재건축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삼성물산은 올해 상반기 ‘강남 재건축 수주대전’으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와 반포주공1단지3주구에서 각각 2400억 원, 8087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며 누적 수주액 1조487억 원을 기록했다. 전체 3위에 해당하는 수치

다. 삼성물산과 함께 반포3주구를 두고 수주 대결을 펼쳤던 대우건설은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기록이 없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양사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구체적인 수주 계획은 아직 없지만 현재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현대건설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도 ▲인천 송림 1·2구역(6742억 원) ▲울산 중구 B-05구역(1601억 원) ▲청주 사직1구역(1680억 원) 등으로 수주하며 현재까지 총 1조232억 원의 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전체 4위를 달리는 중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SK건설, ‘동반성장몰’ 열어 中企 판로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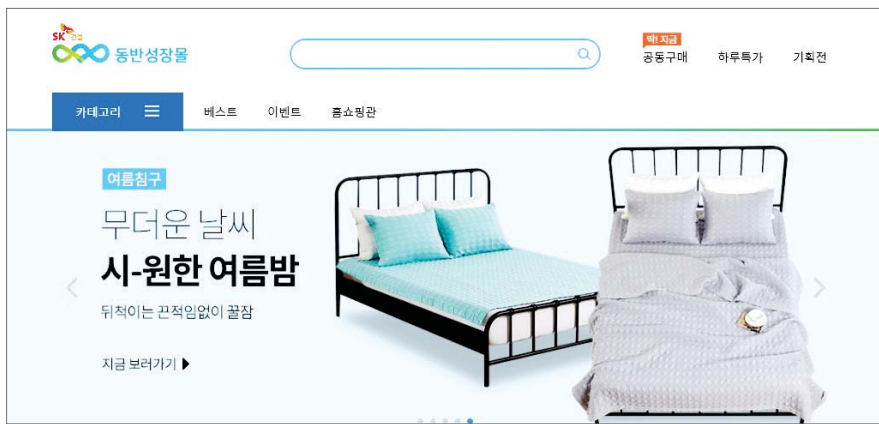
구성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 각종 이벤트로 자율구매 독려

SK건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구성원 전용 온라인 ‘동반성장몰’을 열고,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동반성장몰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중소기업만 입점 및 판매가 가능하며, 가전·생활용품·패션·식품 등 40여개 카테고리, 약 4만여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SK건설 구성원은 누구나 사내 포털을 통해 전용 쇼핑몰에 접속해 입점된 제품을 둘러보고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SK건설은 우수 제품 및 각종 이벤트를 적극 홍보해 구성원의 자율적 구매



SK건설 동반성장몰 캡처 화면. /SK건설

를 독려할 계획이며, 동반성장몰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불황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K건설은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중소기업유

통센터와 동반성장몰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몰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 호반건설, 스마트시티 기술보유 기업 투자

‘디지털 트윈’ 원천기술 보유업체 플렉시티와 투자·업무협약 체결

호반건설은 23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2관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한 플렉시티와 투자 약정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현 호반건설 기획담당 임원, 윤재민 플렉시티 대표, 원한경 플랜에이치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플렉시티는 도시, 건물 3차원 가상화 모델링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빌딩 통합관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실제 공간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해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 트윈’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대현 호반건설 기획담당 임원은 “호반건설은 도시와 주택 등 미래의 모든 공간에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플렉시티와 함께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기



호반건설-플렉시티 투자 약정 및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김대현 호반건설 기획담당 임원(왼쪽)과 윤재민 플렉시티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건설

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며, 플랜에이치벤처스를 통해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민 플렉시티 대표는 “호반건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호반그룹의 모든 사업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 고도화해 향후 스마트도시 관련한 표준화된 기술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 ‘론칭 1년’ 한화 포레나, 미분양 제로 행진

포레나 분양 6개단지 모두 완판 전주·부산 등서 기록적 경쟁률

한화건설이 지난해 8월 론칭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가 약 1년 만에 다양한 기록을 세웠다.

우선 한화건설은 포레나로 분양한 6개 단지를 모두 완판시켰다. 또한 포레나 브랜드로 분양되거나 브랜드를 변경한 모든 단지를 통틀어 미분양 현장은 단 한 곳도 없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포레나 루원시티, 포레나 부산 덕천 등 신규분양 아파트는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각 지역의 최선호 단지, 랜드마크 단지



한화건설 포레나 적용 단지. /한화건설

로 떠올랐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지역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포레나 부산 덕천의 경우 2년 만에 부산 내 최고 청약경쟁률을 다시 쓰기도 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준비

한 포레나 신상품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달라진 브랜드의 실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화 포레나는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로 유명했던 저세에서라도 입증됐다. 한화건설이 2018년 10월 처음 분양해 약 1년 6개월간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저세 장평 꿈에그린’은 ‘포레나 저세 장평’으로 단지명을 변경한 이후 모두 판매됐다.

한화건설은 지난해에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던 천안에서 1순위 청약경쟁률 0.7대 1로 미분양이 예상됐던 포레나 천안 두정을 3개월 만에 완판시킨 바 있다. /정연우 기자

## 미래에셋대우, IRP 적립금 2조 돌파

5개월여 만에 4311억 증가 지난해 말보다 27.4% 성장

미래에셋대우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이 2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대우는 IRP 적립금이 지난 18일 기준으로 2조 19억 원을 나타내 5개월여 만에 약 4311억 원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보다 27.4% 성장한 것이다.

이로써 미래에셋대우의 퇴직연금 적립금(DB·DC·IRP)은 10조9718억 원으로 1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자산은 14조

7709억 원이다.

업계에서 증권업을 통틀어 개인형 IRP 적립금이 2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차별화된 연금상품, 우수 수익률, 컨설팅 전문성, 인프라 편익성 등이 적립금 증가 이유라고 분석했다.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유일하게 IRP 계좌에서 상장 리츠를 매매할 수 있는 것도 빠른 성장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송태화 기자 aavin@

